

이념으로 시작, 사랑을 선택한 탈북자 연인의 1만킬로미터 로드무비



밀리언 셀러 《아버지》의 작가 김정현 씨(46)가 오랜만에 세 권짜리 장편소설 《길 없는 사람들》을 들고 찾아왔다. 그의 이번 소설은 《아버지》와 여러 각도에서 다르고, 한 가지 측면에서 같다.

외환위기 시절, 희망 없는 세대가 되어 버린 아버지와 불치병 암을 연결해 눈물샘을 자극했던 《아버지》와 달리 《길 없는 사람들》에서는 남북 이념문제가 전면에서 등장한다. 소설적 공간 또한 북한 중국 라오스 미얀마 등으로 광범위하게 포진하고 있는데 작가는 이런 서사의 공간에 정교한 리얼리티를 부여해 독자를 낯설게 하기의 유혹에 빠뜨린다. 북한과 중국의

정치문화 시스템, 조선족 한족 북한 사람들의 의식과 언어습관, 생활환경 등이 사실적으로 서술된 《길 없는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우선 작가의 독심과 발품을 높이 사게 만든다. 《아버지》와 견줘 스케일이 다른 이번 소설은 또한 작품 전체를 관류하는 정신으로 '사랑'을 배치함으로써 작가 김정현의 소설적 주제가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준다. 언뜻 '한물 간 소재' 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분단문제를 국제적인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극적인 인물배치와 탈관념적 서술을 통한 발빠른 전개에 '사랑'을 접목시킴으로써 열독熱讀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별다른 히트

작 없이 시무룩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소설작단에 김정현 씨의 《길 없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출판계는 물론 나라 전체가 《아버지》를 냈던 시기 못지않게 불경기에 시달리고 있는 참이다.

“《길 없는 사람들》을 쓰는 동안 집중적으로 취재한 탈북자만 1백여 명이 넘습니다. 6년 전부터 중국을 1백여 차례 왕복하다가 1년 전부터는 아예 중국에 눌러앉아 살고 있지요. 탈북자의 실상을 접하면서 작가적 양심으로 이들의 삶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소설은 실제로 탈주 행로만 1만킬로미터에 이르는 한 남녀의 실화가 밑그림입니다. 인간이 아니면, 여기에 사랑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으면 1만킬로미터에 이르는 도피생활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김씨가 소설에 배치한 두 인물은 이데올로기의 극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남한에는 간첩으로 남파됐다가 체포된 미전향 장기수 김영식이 있고, 북한에는 6·25때 체포된 국군포로 권오철이 있다. 북한에서 나고 자란 이들의 딸과 아들이 소설에서 1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사랑의 대장정을 이끈다.

출신 성분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른 두 사람이 이념과 목표를 뛰어넘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 작가 김정현의 솜씨가 여실히 드러난다.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영식이 재열을 전향시키기 위해 애쓰는 공작 이전의 우정, 북한 보위부의



탈주남녀에 대한 추격전이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파노라마식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이같은 박진감과 정치적 알레고리의 배치는 작가의 강력계 형사생활 10여 년이 큰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실화와 다름없는 이 소설을 쓰면서 이념의 희생자인 두 남녀가 어떤 탈주 행로를 밟았는지 그대로 따라가 봤습니다. 현장 검증 같은 것인데, 저는 자동차를 타고 그 길들을 답사하는 데도 여간 고되지 않았습니다. 그 길들에 서서 길이 아닌 곳만 택해 탈주했던 사람들의 고난을 생각하니 목이 메었습니다. 강력계 형사생활을 하면서 웬만한 일에는 많이 단련됐는데, 몇 년 동안 탈북자들을 취재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연민 때문이 아니라 인간애에 대한 숭고함 때문이었습니다. 박제된 삶을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담보하고 도망치는 것처럼 의미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는 아들 딸과 함께 베이징에 머물고 있지만 실제로 절반 정도는 중국 각지로 취재를 다니면서 이 소설을 썼다. 베이징은 베이스캠프 격인데, 그가 탈북자들을 만나고 느낀 소감은 의외로 명료하다.

우선 북한 사람들은 쌍방향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남한의 시위 현장을 보면서도 그 뒷그림인 건물과 옷과 자동차는 인식의 틀에서 거세해 버린다. 시위가 일어나는 남한은 미제국주의가 지배하는 곳이고, 시위자들은 미제국주의에 의해 단죄된다는 점만 받아들인다.

이런 사고 속에서 살다 탈주에 성공

한 사람들의 새로운 눈뜸은 경이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고 작가는 말한다. 그 경이는 곧 단 몇 시간이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의지로 나타나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탈주의 모형을 그려낸다는 것이다. 작가는 중국과 러시아 태국 미얀마 인도 등지에 30여만 명의 탈북자가 떠돌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햇볕정책이 시도되지 몇 년이 흘렀지만 그 정책은 오히려 탈북자들을 정치적 무관심 대상으로 분류되는 오류도 낳았다는 게 작가의 지적이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1995년 북한에서 일어났던 쿠데타 보고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김정일의 권력세습에 불만을 품은 북한군부의 쿠데타였는데 소설 속에서는 남한과 미국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소설 속에서는 탈북한 권장혁이 교포 탈북자로 구성된 조선구국동맹과 조선인민군 16군단이 연계해 김정일 정권 전복계획을 추진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이런 구도 역시 탈북자 권장혁의 의지라기 보다는 정치공작에 대한 희생양 측면이 많다. 권장혁은 1만킬로미터를 돌고 돌아 조국의 문턱까지 갔지만 국익을 앞세운 남한의 입국불가 통보를 받고 마약군벌에서 용병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심정적으로 보자면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대에 몰려 있는 탈북자들은 여건만 된다면 북한체제 전복을 위해 언제든 나설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들의 정치적 지향점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력이 박제된 틀에서 그들의 가족과 이웃을

구하기 위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작가 김정현 씨는 3권짜리 소설의 대미를 장혁과 지숙이 제3국행을 택하는 것으로 장식했다. 이것은 미완의 해피엔딩인데, 남한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대한 작가의 항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

“당분간 중국에 머물 계획입니다. 아들은 사학을, 딸은 언어학을 공부하는데 녀석들이 내 소설적 주제에 대한 토론자이고, 여행의 동반자입니다. 또 다른 소재가 잡아당기면 그곳을 향해 또 떠나야지요. 작가의 거처란 게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연찮게도 제3국에서 탈북자들의 비련(悲戀)을 소설화하는 데 성공한 작가는 중국에서의 체류가 끝난 후에는 다른 나라로 건너가 소설거리를 찾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리얼리티의 미학을 획득하기 위해 비행기삿만 역대를 날렸다는 작가의 말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는다. ■■

취재 임동헌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